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긴장하세요!

- 쌀국수, 초밥, 카레 등 배달음식점 2,300여 개소 점검 예정
- 위생적 조리,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집중 점검..조리제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분기별 집중 점검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 ('20) 17.3조 → ('21) 25.6조 → ('22) 26조 (출처 : 통계청)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참고로,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식품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담당자	사무관	박진국 (043-719-2054)

